

大學生の 未來意識分析

朴 成 益
(教育學科)

I. 研究問題

人間은 未來를 내다보고 조작할 줄 아는 動物이다. 앞으로 일어날 事態를 豫見하고 所望스런 앞날을 想像하고 計劃하며 不幸한 앞날은 豫防할 줄 안다. 대부분의 人間活動은 意識的으로, 無意識的으로 未來의 事態에 대한 期待와 豫想을 前提로 하고 일어나고 있다(李相周, 1975). 또한 人間活動에 관한 Allport, G의 견해에 따르면 人間行爲의 目標과 努力에 의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노력을 향상 未來狀態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文化와 個人이 가지고 있는 時間志向性의 여하에 따라 努力의 結果를 反省해 보고 현재의 노력을 成功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質的水準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李相周의, 1976).

어떤 社會나 文化속에서 이루어지는 教育은 앞으로 다가올 未來社會에서의 生活에 人間이 잘 適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未來志向의인 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教育의 바람직한 機能은 個人이나 社會가 期待하는 希望的인 未來를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社會·文化의 特徵중에 하나로서 鄭範謨(1975)는 “指數曲線的 變化” “幾何級數的 變化” 내지는 “歷史의 短縮”으로 표현될만큼 急速히 變化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社會變動의 加速化에 따라 새로운 知識, 價値觀, 組織, 制度, 環境등의 變모는 새로이 출현한 것에 미처 익숙하기도 전에 또다른 새로운 것이 폭주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人間에게 未來의 衝擊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¹⁾. 이와같은 現代社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教育이란 未來社會를 향한 젊은 世代들에게 甚 意味있는 活動임에 틀림없다.

人間과 社會의 未來像에 대하여는 學者에 따라 樂觀的 혹은 悲觀的으로 보고 있다. 樂觀的인 立場을 취하는 學者들은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豐饒한 物質文明과 여가시간을 많이 享有할 수 있는 것 외에 知識의 增大, 所得의 上昇, 工學의 進步, 國際協力の 強化, 産兒制限의 보급, 教育의 팽창, 우생학적 발달, 合理主義의 高揚등을 들고 있다. 한편 悲觀的인 立場을 취하는 學者들은 工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社會的인 問題에서의 不安, 公害, 資源枯竭, 所得隔差의 增大, 人口爆發, 食糧不足, 道德的 타락, 環境汚染, 人口增加, 社會의 官

(1) Alvin Toffler, Future shock, N.Y:National General Co. 1970을 인용한 李相周, 未來의 教育像 한국교육개발원편, 教育體制革新의 方向, 1975 p. 37 재인용

僚化 등의 요소로부터 공포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人類의 앞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

이와같이 學者에 따라서는 人間의 앞날을 希望的으로 또는 悲觀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個人’이나 ‘國家’ 및 ‘人類’의 未來를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게 내다 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自成豫言의 理論에서와 같이 앞날을 내다보는 理想이 곧 自我概念에 內面化되어 결국 期待하고 豫想하는 앞날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自我實現이다. 한편 McClelland는 그의 成就動機理論에서 개인의 주변에 있는 物理的 혹은 社會的 環境이나 그 자신의 心理的 條件에 따라 快感이나 不快感이 유발되며, 이러한 快·不快感의 期待水準에 따라 動機狀態는 變化하여 앞으로의 課業遂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鄭元植, 1976).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 한국, 인류에 대한 未來意識水準으로 學生스스로의 發展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國家發展이나 人類의 번영에 영향을 주는 心理機制로써 그 意識水準의 分析은 確 意味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研究에서는 人間의 社會文化的 環境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大學生들이 知覺하는 未來意識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意味辨別 方法⁽³⁾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分析을 위한 大學生들의 背景變因을 專攻領域別, 性別, 成長地別, 家族居住地別, 父母의 教育程度別, 社會經濟的 地位水準別, 매스미디어 接觸水準別로 選定하였는데 그 理由는 人間의 知的·情意的 特性이 形成되는데 어느정도는 環境의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前提⁽⁴⁾로 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를 밝혀보고자 한다.

- (1) 大學生들의 나, 한국, 인류에 대한 未來意識水準은 어떠한가?
- (2) 大學生들의 背景變因에 따라 나, 한국, 인류에 대한 未來意識水準은 差異가 있는가?

이러한 研究의 結果는 學生들에게 보다 肯定的이고 希望的인 未來意識을 形成시켜주기 위한 學校教育課程構成에 새로운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研究의 方法과 節次

1. 道 具

意味辨別尺度(Semantic differential Scale)는 Osgood, C.E.(1957)등이 발전시킨 測定方法

- (2) 鄭範謨의 (1975)「大學生의 人口知識 및 態도의 發達에 관한 研究」에서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希望的인 내용과 위협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서기 2000년대의 한국의 未來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희망적인 사실과 비관적인 사실을 분석 제시하고 있음.
- (3) 意味辨別方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은 Osgood, C.E.등이 발전시킨 心理測定的 한 方法으로 여러가지 事物, 人間, 思想등에 관한 개념의 意味를 意味空間(Semantic space)속에서 측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 概念의 意味를 兩極的인 뜻을 갖는 對比되는 形容詞群에 의해 측정하고 그 結果를 方向, 距離, 強度를 갖는 意味空間에 布置시킬 수 있다는 假定이 밑받침되고 있다.
- (4) 環境의인 要因의 영향이 知的, 情意的 能力的 形成및變化와 어느정도 관계가 있음을 밝힌 結果는 Poul과 Harrell, Gray와 Klaus, 黃仁昌外 등 연구가 있다.

이며 張東煥(1964)은 Osgood, C.E.의 意味辨別 方法을 기초로 하여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 그는 50쌍의 形容詞群을 評價的(Evaluation), 能力(Potency), 活動性(Activity), 精神的 思辨的(Speculative)의 네 要因으로 分析하였다.

本 研究에서 사용된 15쌍의 形容詞問項은 張東煥이 연구한 50쌍의 形容詞群 가운데서, 評價的 形容詞쌍 7問項, 能力要因 形容詞쌍 4問項, 活動性 要因의 形容詞쌍 4問項을 선정한 것이다⁵⁾. 이와같이 선정된 15쌍의 問項은 應答者의 誠實한 反應을 얻기 위하여 評價的 要因, 能力要因, 活動性要因의 問項을 混合하여 檢査問項을 作成하였으며, 形容詞쌍의 배열은 肯定과 否定의 차례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였다. 그리고 各 形容詞쌍의 尺度는 應答者로 하여금 제시된 概念이 兩極的 形容詞사이의 7段階 尺度에서 자신의 意見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意味辨別尺度로서 肯定-一否定의인 形容詞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評價的 要因: 아름답다-추하다, 희다-검다, 착하다-악하다, 좋다-나쁘다, 깨끗하다-더럽다
기쁘다-슬프다, 밝다-어둡다.
- (2) 能力要因: 크다-작다,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건강하다-쇠약하다, 똑똑하다-어리석다.
- (3) 活動性要因: 빠르다-느리다, 날카롭다-무디다, 활발하다-둔하다, 새롭다-낡았다.

2. 標 集

본 연구에서의 標集은 鄭範謨의 2人 (1975)이 연구한 「韓國大學生의 人口知識 및 態度的 發達에 관한 연구」에서 標集한 931명의 資料중에서 大學校 三學年 四學年 學生 298명을 無選 標集하였으며, 標集過程에서 學科 및 性別의 偏重標集現象을 막기 위하여 類層標集方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鄭範謨, 1964). 본 연구에서 標集한 事例數는 <表 1>과 같다.

<表 1> 標集事例數

구 분	계 열 별			성 별		계	비 (표 집 학 교)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성	여 성			
사례수	100	93	105	155	143	298	서울대	47
							연세대	63
							동국대	63
%	33.6	31.2	35.2	52.0	48.0	100.	충남대	63
							전북대	62

3. 資料의 蒐集 및 分析

檢査實施方法은 標集對象의 學科에 있는 教授에게 檢査실시를 의뢰하였으며 檢査實施方

- (5) 評價的 形容詞쌍 問項의 負荷量은 .75이상, 能力要因과 活動性要因의 形容詞쌍은 負荷量이 .55 이상인 것을 선택한 것임.

法 및 節次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研究助員이 직접 檢査實施要領을 교수에게 알려주었다. 檢査實施方法은 集團的으로 質問紙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檢査實施時間은 制限을 두지 않았다.

檢査實施期間은 1975年 10月 13일부터 11月 2일까지 약 3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標集된 資料는 資料의 有用性을 검토한 다음 統計處理를 하였다. 各 形容詞尺은 7段階尺度로서 구성되었으며, 形容詞尺의 點數配點은 가장 否定的인 段階로부터 1점에서 7점까지 배점하였고 4점이 중간점수가 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肯定的인 경향을 나타내도록 點數化하였다. 統計處理方法으로는 平均, 標準偏差, CR檢證등의 方法을 사용하였다.

Ⅲ. 結果 및 解釋

1. 全體反應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한 意識水準은 어떠하며, 학생의 背景變因에 따라 意識水準에는 어느정도 差異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意味辨別方法을 使用하여 分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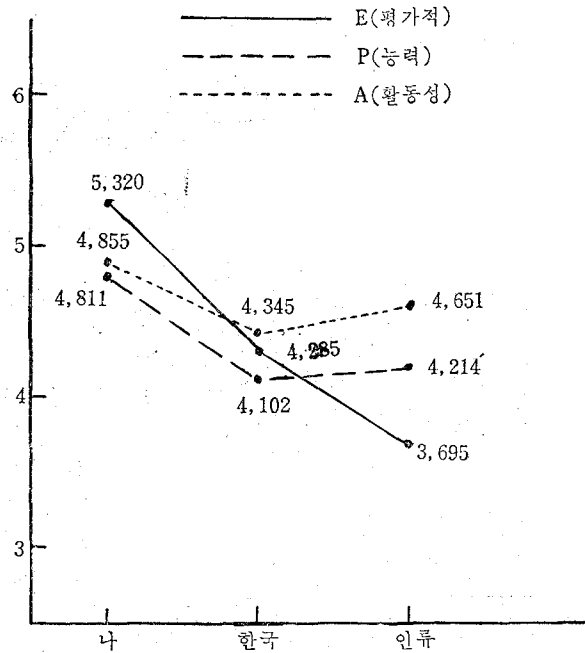
評價的 要因, 能力 要因, 活動性 要因에 대한 形容詞쌍의 檢査배점은 1점에서 7점까지 분포되며 그 中間點은 4점이다. 平均點數가 4점보다 높으면 肯定的인 傾向의 反應이며, 4점보다 낮으면 否定的인 反應으로 해석할 수 있다.

〈圖 1〉과 〈表 2〉를 보면 全體反應의 結果에서 評價的 要因은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希望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나의 未來”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게 내다보고 있다. 즉 ‘나’ ‘한국’ ‘人類’의 未來 상호간에는 1% 수준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서 ‘나의 未來’는 ‘韓國의 未來’나 ‘人類의 未來’에 비해 일등히 差異가 있을 정도로 肯定的이라고 볼 수 있다.

能力 要因에서는 ‘나의 미래’는 平均이 4.8이고, ‘韓國’과 ‘人類’의 未來는 中間點을 약간 上廻하여 다소 希望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미래’에는 상당한 정도로 能力感이 있으며, ‘韓國의 미래’와 ‘人類의 未來’ 사이에는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活動性 要因에서 ‘나’ ‘한국’ ‘人類’의 未來는 모두 肯定的으로 나타났으며 ‘나의 未來’에 대해서 活動性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나, 한국, 인류의 未來’ 사이에는 5% 수준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評價的 要因에서 나의 未來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學生들이 自我效能感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能力 要因과 活動性 要因에서 ‘人類의 未來意識’이 ‘韓國의 未來意識’보다 點數가 높게 나타나고, 評價 要因에서 ‘人類의 未來’에 대해 悲觀的으로 反應한 것은 科學技術의 發展이 오히려 人口增加, 核戰爭, 空害問題등을 수반



〈圖 1〉 전체 반응

〈表 2〉全體反應 (N=298)

구분	개념	나의미래	한국의미래	인류의미래	차의 의의도 CR검증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평가적요인	M	5.320	4.285	3.695	10.480**	5.896**	18.087**
	S D	1.079	1.320	1.114			
능력요인	M	4.811	4.102	4.214	6.453**	1.001	5.493**
	S D	1.301	1.380	1.352			
활동성요인	M	4.855	4.345	4.651	5.025**	2.732**	1.984*
	S D	1.114	1.352	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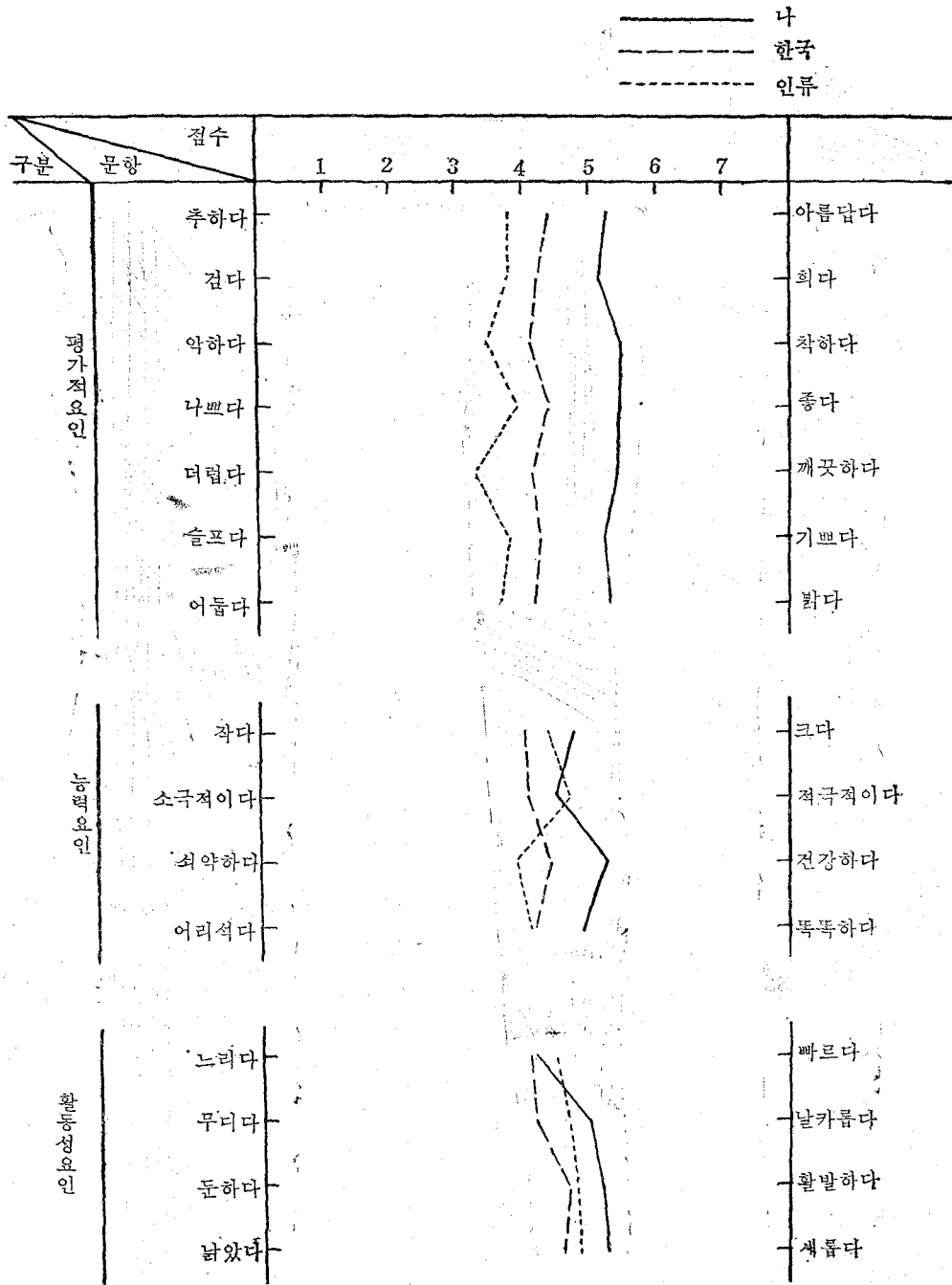
의의도수준 ** p < .01

* p < .05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보여진다.

2. 問項別 反應差

‘나’, ‘韓國’, ‘人類’의 未來에 대한 評價的, 能力, 活動性 要因의 問項別 反應結果는 〈圖 2〉와 같다.



〈圖 2〉 문항별 반응차

評價의 要因에서는 ‘나의 未來’를 가장 肯定的으로 다음이 ‘韓國의 未來’, 그리고 ‘人類의 未來’는 否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나의 未來’에 대해서는 약간 아름답고, 희고, 착하고, 좋고, 깨끗하고, 기쁘고, 밝게 생각하고 있으나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肯定的이기는 하나 희망적도 비관적도 아닌 중간에 가까울 정도이고,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는 否定的이기는 하나 희망적도 비관적도 아닌 중간에 가깝다.

能力要因에서는 ‘나의 未來’는 약간 肯定的이고,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건강하기는 하나 중간적인 評價를 하고 있고, ‘人類의 未來’는 韓國의 未來보다는 최악하나 약간 적극적이고 크게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活動性要因은 ‘나’ ‘한국’ ‘人類’에 대해서 대체로 빠르고, 날카롭고, 활발하고, 새롭게 느끼고 있으며 모두 肯定的이기는 하나, ‘나의 未來’를 가장 활발한 것으로, 다음이 ‘人類의 未來’ 마지막이 ‘韓國의 未來’ 순으로 反應이 나타났다.

대체로 ‘나의 未來’는 약간 밝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韓國이나 人類의 未來’는 밝기는 하지만 中間點에 가깝다. 특히 評價의 要因에서 ‘人類의 未來’를 否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能力 및 活動要因에서는 ‘韓國’보다는 ‘人類의 未來’를 조금 더 肯定的으로 意識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속에서 느끼는 것이므로 막연한 ‘人類의 未來’보다는 過少評價 내지는 否定的인 反應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3. 專攻領域別 反應差

學問系列에 따라 學生들의 觀心事는 다르고 또한 접하게 되는 知的 活動도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學問의 系列을 크게 人文系, 社會系, 自然系로 分類하여 系列에 따라 未來意識의 程度는 어떠하며, 각 系列間에는 未來意識水準에 어느 정도의 差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하며 그 分析의 結果는 <圖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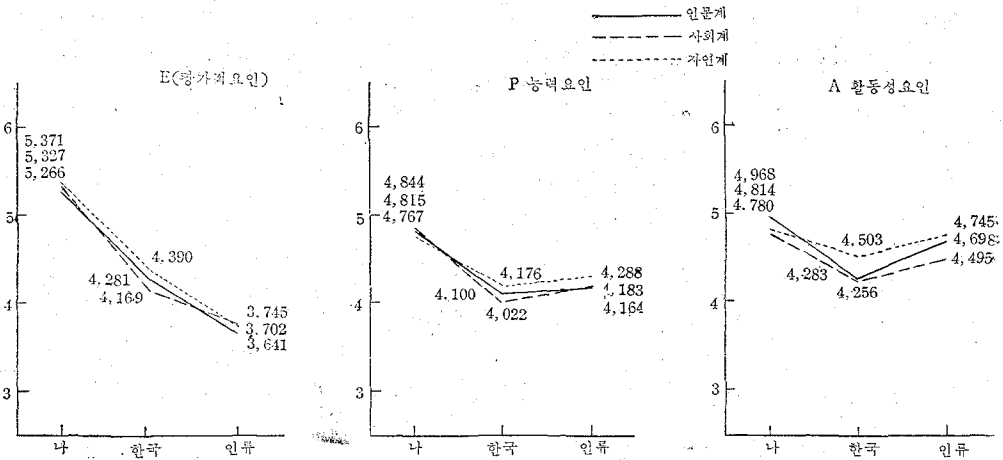
첫째로 未來意識의 評價要因에서는 모든 系列의 學生이 共通의 反應으로 ‘나의 未來’에 대해서는 希望의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고,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약간 希望의이고, 人類의 未來는 약간 悲觀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系列의 學生이 공통적으로 ‘나’, ‘韓國’, ‘人類’의 未來사이에 느끼고 있는 평가적 요인은 1%水準에서 서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다.

둘째로 未來意識의 能力要因에서는 ‘나’, ‘韓國’, ‘人類’의 未來에 대한 反應은 學問系列에 따라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系列의 學生이 共通의 反應으로 평균 4점 이상을 나타내 能力이 다소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의 未來’가 가장 能力이 있고 그 다음이 韓國의 未來, 그리고 人類의 未來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계열의 학생의 反應은 ‘나와 韓國’, ‘나와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差를 보이고, ‘韓國과 人類’의

未來間에는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째로 活動性要因에서는 人文系나 社會系學生이 自然系學生보다 ‘나의 未來’에 대해서 느끼고 둔하다고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人文社會系 學生들은 ‘나’, ‘人類’의 未來보다 ‘韓國’의 未來를 느끼고 둔하고 무딘것으로 意識하고 있다.

이와같이 自然系學生이 다른 系列학생보다 評價的, 能力, 活動性 要因에서의 意識이 希望的인 것은 科學的 知識의 發達을 보다 많이 접하고 있고 環境의 變化를 보다 신속하고 예리하게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圖 3〉 專攻領域別 反應差

4. 性別 反應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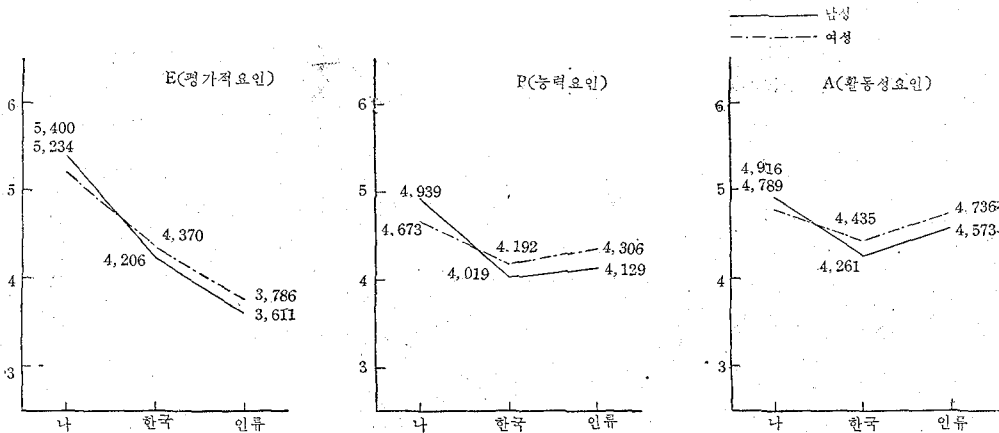
未來意識에 대한 評價的 要因은 性別에 따라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圖 4〉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나의 未來’와 ‘韓國의 未來’는 약간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고, 기쁘게 생각하나 ‘人類의 未來’에 대한 評價要因은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韓國, 한국-인류, 나-인류’의 未來사이에는 1%수준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能力要因에서는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性別에 따른 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나의 未來와 韓國의 未來’, ‘나의 未來와 人類의 未來’ 사이에 1%수준에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能力要因에서는 ‘나의 未來’를 가장 肯定的으로 意識하고 있으며 ‘韓國의 未來’에 대한 能力要因은 中間정도이다.

끝으로 活動性 要因은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男女가 공통으로 약간 肯定的

인 意識을 갖고 있다. 특히 男性이 느끼고 있는 ‘나와 人類의 未來’ 사이에는 5% 水準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고, 女性의 경우는 ‘나와 한국, 한국과 人類의 未來’ 사이에 각각 5% 水準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性別에 따른 差로서는 일반적으로 女性보다 男性들이 ‘나의 未來’에 대해서 肯定的인 意를 나타내고 있고, ‘韓國과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는 그 반대현상을 보인다. ‘나의 未來’에 대해 女性이 男性보다 否定的인 反應을 보인 것은 女性이 男性보다 자신의 能力을 왜소하게 평가하는 保守的인 思考의 傾向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圖 4〉 性別 反應차

5. 成長地別 反應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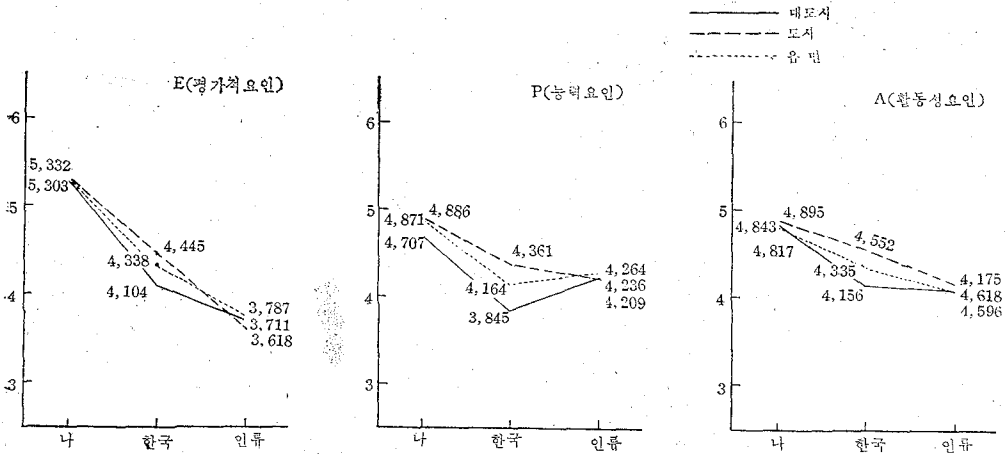
成長地는 서울·부산·대구를 묶어서 大都市集團으로, 大都市集團을 除外한 都市集團 및 읍·면集團으로 分類하였다.

〈圖 5〉를 보면 成長地에 따른 未來意識은 ‘人類의 未來’에 대한 評價的 요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肯定的인 反應이다. 그리고 個人에 대한 未來意識은 한국이나 人類에 대한 未來意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成長地別에 따른 未來意識의 差異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만 大都市보다 都市가 더욱 긍정적이며 5% 水準에서 意味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要因別 分析結果로서 評價要因은 成長地域別에 따라 ‘나, 한국, 人類의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差異는 5%水準에서 意義있는 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大都市보다 都市의 學生들이 5%水準에서 意味있는 差가 있을 정도로 肯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다.

能力要因에서는 大都市의 學生단이 否定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成長地別에 따라서 ‘나, 한국, 인류의 미래’에 대한 未來意識水準間에는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났으며, 都市와 邑面이 成長地인 學生들의 경우에 ‘韓國과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意味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活動性要因에서는 ‘나, 한국, 인류의 未來’에 대해 어떤 地域에서 자랐든간에 肯定的인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나, 韓國, 人類의 未來’順으로 活動性이 높은 것으로 意識하고 있다. ‘나와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어떤 地域에서 자랐든간에 5%水準에서 意味있는 差異가 있을 정도로 ‘나의 未來’를 더욱 活動的이라고 느끼고 있다. 또한 大都市 學生들은 ‘韓國과 人類의 未來’ 사이에서 ‘人類의 未來’를 좀 더 活動的이라고 意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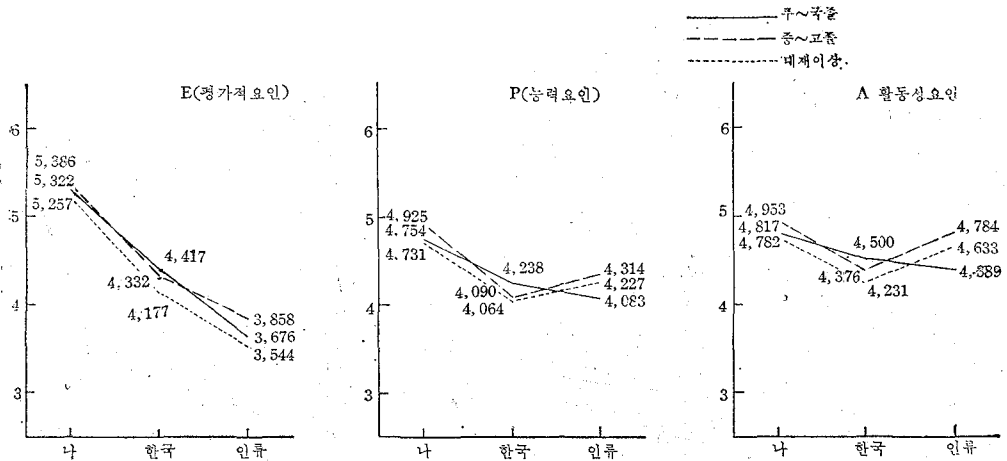
<圖 5> 성장지별 반응차

6. 父母의 教育水準別 反應差

父母의 學力을 國民學校卒業集團, 中等學校卒業集團, 大學在學以上の 集團으로 分類하여 比較分析하였다. 父母의 學力은 父의 學力에 基準을 두고, 父가 없는 경우에는 母의 學力으로 대치하였다.

<부록표 5>와 <圖 6>을 보면 未來意識形成에 父母의 學力은 意味있는 差異를 나타낼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나, 韓國,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評價的, 能力, 活動性이 있는 것으로 意識되고 있으며, ‘나, 韓國, 人類의 未來’순으로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學力의 차에 구별없이 ‘나와 한국, 나와 人類’의 未來 사이에 5%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韓國’이나 ‘人類’보다 ‘나’에 대한 未來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똑똑하다는 意識을 갖고 있으며 父母의 學力이 中高卒인 경우에 그런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즉, 父母의 學力이 높거나 낮으면 未來意識的 刺戟을 적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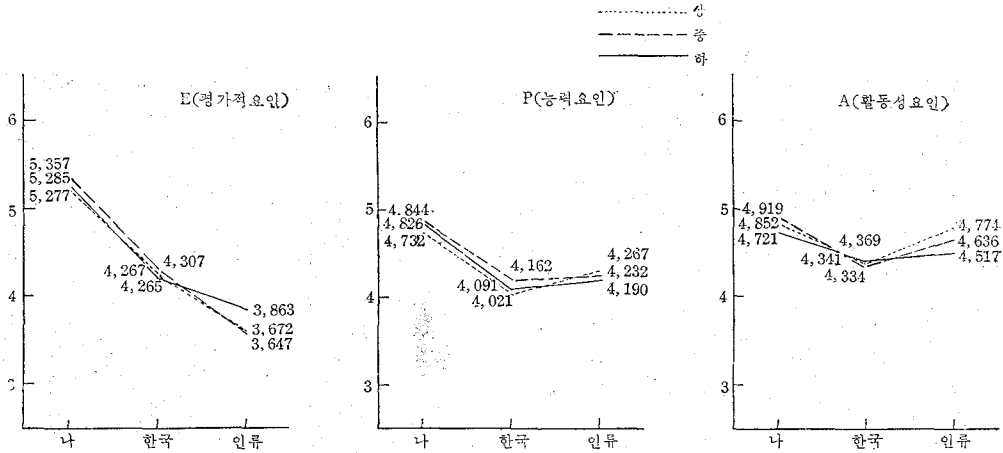


〈圖 6〉 부모의 교육수준별 반응차

7. 社會 經濟的 地位水準別 反應差

社會經濟的 地位水準을 決定하기 위하여 16種의 文化施設을 제시한후, 표집된 學生들의 家庭에 있는 물건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각 물건마다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社會경제적 지위가 낮게 評定되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에는 社會경제적 지위가 높게 평가되도록 序列尺度를 부여하였다. 序列尺度로서 낮은 評定을 받은 것부터 제시하면 ① 라디오, ② 시계, ③ 신문, ④ 재봉틀, ⑤ 전기다리미, ⑥ 선풍기, ⑦ T.V, ⑧ 카메라, ⑨ 녹음기, ⑩ 전화, ⑪ 전기난로, ⑫ 냉장고, ⑬ 스텝시절, ⑭ 피아노, ⑮ 자가용, ⑯ 에어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 學生의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중 제일 높은 번호를 나타내는 물건이 있을때 그 번호는 곧 응답자의 社會경제적 지위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리하여 類度分布의 경향을 참작하여 1~9번까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社會경제적 지위가 제일 낮은 集團, 10~12번까지의 물건을 가지면 中集團, 그리고 13~16번까지의 물건이 있으면 社會經濟的地位가 제일 높은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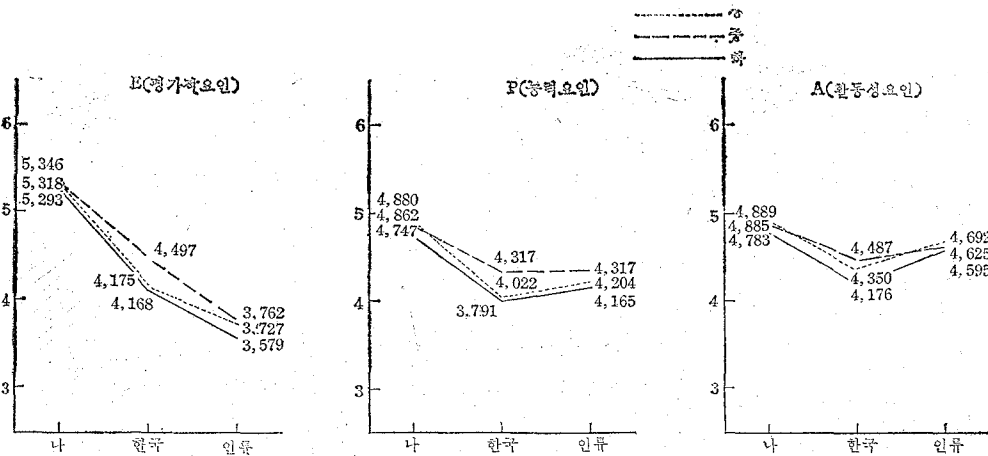
〈圖 7〉에서 보면 社會經濟的水準(上集團, 中集團, 下集團)에 따라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한 意味있는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集團이든간에 '나, 한국, 人類의 미래'에 대해서는 評價的, 能力, 活動性的 要因을 肯定的으로 意識하고 있다. 活動性에서는 中集團이 '나와 韓國, 나와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意味있는 差異를 보이고, 上集團은 '나와 韓國의 未來' 意識間에 意味있는 差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活動性要因에서는 中集團이 제일 날카롭고 화려하다고 意識하고 있다.



<圖 7> 사회 경제적지위 수준별 반응차

8. 매스미디어 接觸水準別 反應差

매스미디어 接觸水準을 설정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TV, 라디오, 대중잡지, 학술잡지에 대해서 “매일(잡지는 매월)—자주—가끔—전연안한다”의 4등급을 제시한 후 그중 학생 자신이 접하는 정도를 항목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일(매월)은 4점, 자주는 3점, 가끔은 2점, 전연안한다는 1점을 부여하여 個人이 5項目으로부터 얻는 총 득점을 기준으로



<圖 8> 매스 미디어 접촉수준별 반응차

하여 15~20점 득점자는 상집단, 13~14점 득점자는 중집단, 12점이하 득점자는 下集團으로 分類하였다.

〈圖 8〉을 보면 매스미디어의 接觸水準에 따라서는 ‘나, 한국, 인류의 未來’에 대해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評價的要因에서는 ‘나와 韓國의 未來’는 肯定的인 反應이 나타나고 ‘人類의 未來’는 다소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能力要因과 活動性要因에서는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하여 中間점보다는 약간 높게 肯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다.

‘나의 未來’에 대해서는 매스미디어 接觸水準이 높을수록 더욱 肯定的이고, ‘韓國과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는 中集團이 上集團이나 下集團보다 더욱 긍정적인 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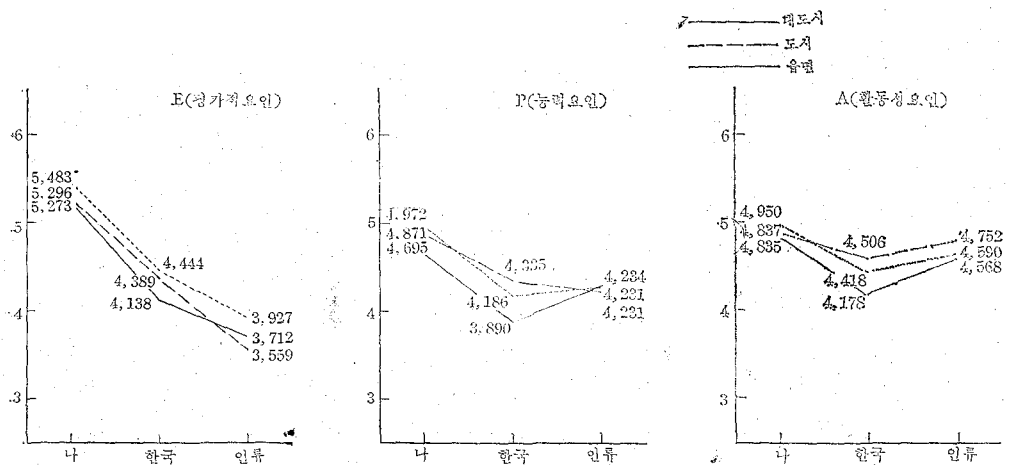
9. 家族居住地別 反應差

家族居住地의 區分은 成長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大都市, 都市, 읍면집단을 分類하였다.

〈圖 9〉에서 보면 家族居住地에 따라서 볼때 評價要因에서 ‘나와 韓國의 未來’는 積極적이고 ‘人類의 未來’는 否定的인 傾向이 있으며 地域別로는 읍면—도시—대도시의 順으로 平均점수는 낮아지고 있다.

能力要因에서는 家族居住地가 大都市인 경우에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 否定的인 反應의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나의 未來’에 대해서 能力要因의 意識은 大都市에서 都市 邑面으로 갈수록 더욱 肯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다.

活動性要因은 ‘나, 한국, 人類의 未來’에 대해서 약간 肯定的이다. 都市의 學生들이 大都市나 邑面の 學生들보다 活動性要因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圖 9〉 가족 거주지별 반응차

IV. 論 議

以上과 같은 分析結果로부터 다음과 같은 論議를 제기할 수 있다.

‘나, 韓國, 人類’에 대한 未來意識이란 知的인 面보다 情意的인 特性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人間의 意識과 關聯지어 Rosenberg, M.J.(1960)⁽⁶⁾는 態度란 認知的 측면에서는 信念의 知覺反應, 情意的인 面에서는 感情의 言語的 表現으로 提示되는 것이며 또한 刺戟要素인 態度對象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朴容憲(1973)은 “態度란 한 特定한 事物이나 事態에 대한 反應傾向이며 認知的 感情의 行動的 要素로 構成된다”고 밝히고 있다.

學校教育課程을 살펴보면 대체로 未來에 대한 教育內容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거나, 間接的으로 약간 제시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未來에 대한 學生들의 意識形成은 대체로 非形式的 教育課程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學生들의 미래의식은 學生이나 教師와의 相互作用가운데서 形成되거나 또는 經驗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社會的 物理的 條件으로부터 받는 刺戟에 의하여 形成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未來意識과 關聯지어 學生들의 背景變因을 中心으로 分析해 본 것이다.

첫째로 要因別로 分析하여 본 結果는 評價的 要因에서 ‘나의 未來’를 가장 肯定的으로 다음이 ‘韓國의 未來’를 그리고 ‘人類的 未來’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傾向을 나타냈다. 그러나 能力要因과 活動性要因에서는 ‘나의 未來’를 가장 肯定的으로 다음이 ‘人類的 未來’, 마지막으로 ‘韓國의 未來’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적어도 대학생들의 경우에 自身에 대한 自我效能感은 대단히 높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評價要因에서 ‘韓國의 未來’를 ‘人類的 未來’보다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社會經濟的 發展速度가 두드러짐을 나타낸 것이라 보인다.

둘째로 背景變因에 따른 差異로서 學問系列別의 分析結果는 自然系學生이 人文社會系學生보다 훨씬 肯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自然系 學生의 學問的 性格이 學生들에게 보다 科學的인 分析能力을 길러주고, 많은 科學的인 知識과 技術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기때문일 것이다.

셋째로 性別에 따른 結果는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의 未來’에 대해서 男性보다 女性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女性의 保守的 思考나 價値觀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넷째로 成長地에 따른 結果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 大都市와 都市의 學生間에 意味있

(6) Rosenberg, M.J. and C.I. Horland(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Yale Univ. press: 1960 p.3을 인용한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 서울: 교육출판사. 1973. p.38. 재인용

는 差異가 나타났고 ‘나의 未來’와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 都市의 學生들이 大都市의 學生들보다 評價的, 能力, 活動性 要因에 모두 높게 反應을 보인 것은 成長過程에서 都市의 環境條件이 大都市의 環境條件보다 學生들에게 肯定的 未來意識을 形成시켜준 결과로 보여진다. 즉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大都市의 環境은 成長하는 學生들에게 否定的인 未來意識을 形成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로 父母의 教育水準別,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水準別, 매스미디어 接觸水準別에 다른 差異는 意味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고 있다. 즉 父母의 教育水準別로 볼때 大學在學以上인 父母를 가진 學生은 中等學校學力을 가진 父母의 學生들보다 評價的, 能力, 活動性 要因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는 父母의 學力이 낮을수록 더욱 希望的인 反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父母의 學力水準이 學生들의 未來意識形成에는 적극적인 요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家族居住地變因에서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 都市學生들이 大都市學生들보다 能力이 있고 活動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都市보다 都市의 發展過程이 더욱 급속하다고 知覺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未來意識水準分析을 위한 測定道具의 問項數가 적고 또한 標集된 事例數가 충분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를 一般化하기는 어렵다.

V. 結論 및 提言

앞에서 提示한 理論의 背景, 研究의 結果·解釋 및 論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나의 未來’에 대한 意識은 매우 肯定的이며 ‘韓國의 未來’에 대한 意識은 肯定的인 것은 하나 中間에 가깝다.
2. 評價 要因에서는 ‘人類의 未來’를 悲觀的으로 보고 있고, 能力 要因과 活動性 要因에서는 ‘한국, 인류, 나의 未來’순으로 肯定的인 意識을 점점 높게 갖고 있다.
3. 專攻領域別에 다른 差異는 自然系學生이 人文社會系學生보다 肯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다.
4. 成長地別 및 家族居住地別에 따른 大都市와 都市의 學生間에는 韓國의 未來에 대해서 意味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都市學生이 大都市學生보다 希望的인 未來像을 갖고 있다.
5. 性別, 父母의 教育水準別, 社會經濟的 地位水準別에는 意味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變因들은 未來意識의 形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以上과 같은 結論에 비추어 ‘나, 한국, 인류의 未來’에 대한 意識水準은 滿足할만큼 樂

觀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보다더 肯定的인 未來像을 學生들에게 形成시켜 주고 밝은 未來像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未來에 관한 教育課程의 開發로 學生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都市의 學生들이 大都市의 學生들보다 希望的인 未來像을 갖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都市化 傾向과 人口集中現象이 學生의 情意的 特性인 未來意識形成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 결과이다. 그러므로 都市化에 따른 經濟 社會 文化 人口 環境등의 諸般問題가 綜合的으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朴容憲, 1973. 社會的 行動과 學習, 서울: 教育出版社, p. 308
- 李相周, 1975. 未來의 教育像, 教育體制革新의 力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李相周의1譯, 1976. 未來를 위한 學習 I, 서울: 배영사
- 張東煥, 1964. 韓國語의 意味論的 構造에 관한 研究, 成大論文集, 第9輯, pp. 191—205.
- 鄭範謨, 1964. 教育統計, 서울: 배영사
- 鄭範謨, 1975. 未來의 意味, 鄭範謨편, 未來, 서울: 배영사 p. 8.
- 鄭範謨의2, 1975. 大學生의 人口知識 및 態度的 發達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鄭元植, 1976. 知力과 情意的 教育, 서울: 배영사
- 黃禎奎, 1968. 教育評價, 서울: 교육출판사, pp. 552—559.
- Alvin Toffler. 1970. Future shock, N.Y.: National General co.
- Osgood, C.E.,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 of Illinois Press, Urbana, p. 100.

부 록

<表 1> 問項別 反應差

N=293

영역	구분	나의 미래		한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	
		M	S D	M	S D	M	S D
평가요인	추진하다	5.258	0.968	4.399	1.274	3.762	1.359
	하나다	5.138	1.311	4.211	1.220	3.758	1.337
	악하다	5.483	1.014	4.114	1.295	3.477	1.359
	나쁘다	5.450	1.016	4.372	1.336	3.889	1.305
	슬기없다	5.430	1.252	4.148	1.231	3.245	1.205
	어둡다	5.208	1.175	4.215	1.522	3.748	1.336
	불행하다	5.275	1.128	4.195	1.430	3.651	1.449
	전체평균	5.320	1.079	4.285	1.320	3.695	1.365
능력요인	작다	4.732	1.359	3.953	1.399	4.312	1.438
	적약하다	4.430	1.441	4.023	1.443	4.671	1.375
	적하다	5.205	1.286	4.322	1.345	3.805	1.367
	리석다	4.862	1.012	4.111	1.289	4.067	1.516
	전체평균	4.811	1.301	4.102	1.380	4.214	1.431
활동요인	느부다	4.164	1.128	4.054	1.330	4.463	1.419
	리다	4.946	1.194	4.144	1.494	4.604	1.451
	다하다	5.101	1.125	4.607	1.309	4.752	1.255
	앞다	5.208	1.149	4.540	1.373	4.785	1.371
	전체평균	4.855	1.114	4.345	1.352	4.651	1.382

<表 2> 專攻領域別 反應差

N=298 (人文=100, 社會=93, 自然=105)

구분	개념	M	S D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R 檢證			
				나: 韓國	韓國: 인류	나: 인류				
評價要因	인문계	5.260	1.124	4.281	1.262	3.641	5.793**	3.533**	9.424**	
	사회계	5.327	1.080	4.169	1.330	3.745	6.518**	2.119*	8.636**	
	자연계	5.371	1.030	4.390	1.356	3.702	5.903**	3.622**	12.250**	
	差의 意義度 CR 檢證	인문: 사회	0.422	0.599	0.534					
		사회: 자연	0.292	1.156	0.216					
인문: 자연		0.736	0.596	0.324						
能力要因	인문계	4.815	1.291	4.100	1.378	4.183	3.787**	0.428	3.321**	
	사회계	4.844	1.325	4.022	1.376	4.164	4.150**	0.690	3.397**	
	자연계	4.767	1.327	4.176	1.374	4.288	3.170**	0.568	2.466*	
	差의 意義度 CR 檢證	인문: 사회	0.211	0.393	0.094					
		사회: 자연	0.408	0.786	0.604					
인문: 자연		0.262	0.395	0.522						
活動性要因	인문계	4.968	1.199	4.263	1.336	4.698	3.928**	2.287*	1.493	
	사회계	4.780	1.261	4.256	1.317	4.495	2.775**	1.210	1.235	
	자연계	4.814	1.244	4.503	1.341	4.745	1.747	1.277	0.577	
	差의 意義度 CR 檢證	인문: 사회	1.060	0.037	1.33					
		사회: 자연	0.191	1.305	1.264					
인문: 자연		0.900	1.283	0.244						

意義度水準 *p<.05, **p<.01

<表 3> 性別反應表

N=298 (남=155, 여=143)

구 분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 R 檢證		
	성	M	S D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남성 : 여성	남성 : 여성	남성 : 여성
評價要因	남	성	M S D	5.400 1.096	4.206 1.468	3.611 1.508	8.114**	3.520**	11.947**
	여	성	M S D	5.324 1.173	4.370 1.131	3.786 1.184	6.340**	4.265**	10.389**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남성 : 여성		1.259	1.805	1.119			
能力要因	남	성	M S D	4.939 1.344	4.019 1.462	4.129 1.690	5.767**	0.621	4.739**
	여	성	M S D	4.673 1.237	4.192 1.280	4.306 1.216	3.231**	0.772	2.530*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남성 : 여성		1.779	1.088	1.060			
活動性要因	남	성	M S D	4.916 1.184	4.261 1.417	4.573 1.505	4.416	1.879	2.230*
	여	성	M S D	4.789 1.181	4.435 1.271	4.736 1.230	2.440*	2.035*	0.372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남성 : 여성		0.926	1.117	1.027			

意義度水準 *p<.05, **p<.01

<表 4> 成長地別 反應差

N=298

(대도시=118, 도시=110, 읍면=70)

구 분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 R 檢證		
	성	M	S D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대도시 : 도시	도시 : 읍면	대도시 : 읍면
評價要因	대 도시	성	M S D	5.303 1.011	4.104 1.309	3.711 1.316	7.875**	2.300**	10.421**
	도시	성	M S D	5.332 1.124	4.455 1.173	3.618 1.370	5.661**	4.867**	10.144**
	읍면	성	M S D	5.332 1.009	4.338 1.394	3.787 1.360	4.590**	2.367*	7.633**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대도시 : 도시 도시 : 읍면 대도시 : 읍면		0.204 0.000 0.190	2.135* 0.510 1.138	0.561 0.810 0.375			
能力要因	대 도시	성	M S D	4.707 1.301	3.845 1.428	4.230 1.383	4.847**	2.103*	2.729**
	도시	성	M S D	4.886 1.292	4.361 1.148	4.209 1.436	3.186**	0.867	3.675**
	읍면	성	M S D	4.871 1.149	4.164 1.432	4.264 1.285	3.222**	0.435	2.946**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대도시 : 도시 도시 : 읍면 대도시 : 읍면		1.042 0.081 0.900	3.016** 0.970 1.478	0.112 0.267 0.170			
活動性要因	대 도시	성	M S D	4.843 1.197	4.156 1.376	4.618 1.437	4.092**	2.522*	1.307
	도시	성	M S D	4.895 1.259	4.552 1.186	4.693 1.358	2.080*	0.824	1.144
	읍면	성	M S D	4.817 1.234	4.335 1.437	4.596 1.463	2.130	1.065	0.966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대도시 : 도시 도시 : 읍면 대도시 : 읍면		0.319 0.410 0.141	2.332* 1.005 0.839	0.405 0.446 0.100			

意義度水準 *p<.05 **p<.01

〈表 5〉 父母의 教育水準別 反應差 N=298 (무국졸=63, 중고졸=117, 대재이상=118)

구 분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R 檢證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評價要因	무·국 졸 M	5.322	4.417	3.676	4.322**	3.005**	7.830**
	SD	1.125	1.380	1.388			
	중·고 졸 M	5.386	4.332	3.858	6.768**	2.655**	9.514**
	SD	1.031	1.332	1.398			
대 재 이 상 M	5.257	4.177	3.544	7.626**	3.977**	11.206**	
SD	1.033	1.140	1.300				
差의 意義度 CR 檢證	무국졸:중고졸	0.425	0.399	0.837			
	중고졸:대재이상	0.958	1.329	1.783			
	무국졸:대재이상	0.432	1.182	0.859			
能力要因	무·국 졸 M	4.754	4.238	4.083	2.121*	0.850	2.837**
	SD	1.372	1.359	1.281			
	중·고 졸 M	4.925	4.090	4.314	5.000**	1.144	3.220**
	SD	1.222	1.330	1.649			
대 재 이 상 M	4.731	4.064	4.277	3.926**	0.917	2.969**	
SD	1.241	1.366	1.364				
差의 意義度 CR 檢證	무국졸:중고졸	0.828	0.702	1.040			
	중고졸:대재이상	1.207	0.148	0.440			
	무국졸:대재이상	0.111	0.819	0.704			
活動性要因	무·국 졸 M	4.817	4.500	4.389	1.381	0.455	1.754
	SD	1.287	1.289	1.447			
	중·고 졸 M	4.953	4.376	4.784	3.362**	2.215*	0.952
	SD	1.258	1.365	1.451			
대 재 이 상 M	4.782	4.231	4.633	3.398**	2.490*	0.725	
SD	1.163	1.323	1.342				
差의 意義度 CR 檢證	무국졸:중고졸	0.682	0.603	1.745			
	중고졸:대재이상	1.082	0.823	0.663			
	무국졸:대재이상	0.180	1.325	1.244			

意義度水準 *p<.05 **p<.01

〈表 6〉 社會 經濟的 地位水準別 反應差 N=298 (상집단=71, 중집단=156, 하집단=71)

구 분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R 檢證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評價要因	상 집 단 M	5.277	4.267	3.647	4.405**	2.610**	7.281**
	SD	1.029	1.382	1.448			
	중 집 단 M	5.357	4.307	3.762	8.219**	4.531**	12.995**
	SD	1.026	1.222	1.253			
하 집 단 M	5.285	4.265	3.863	5.568**	1.794	7.943**	
SD	0.739	1.355	1.315				
差의 意義度 CR 檢證	상집단:중집단	0.484	0.209	0.126			
	중집단:하집단	0.599	0.223	1.029			
	상집단:하집단	0.047	0.009	0.930			
能力要因	상 집 단 M	4.732	4.021	4.267	4.878**	0.271	2.016*
	SD	1.291	1.441	1.453			
	중 집 단 M	4.844	4.163	4.232	4.888**	0.479	4.351**
	SD	1.200	1.260	1.283			
하 집 단 M	4.820	4.091	4.190	3.100**	0.407	2.634**	
SD	1.376	1.426	1.472				
差의 意義度 CR 檢證	상집단:중집단	0.619	0.715	0.174			
	중집단:하집단	0.127	0.365	0.207			
	상집단:하집단	0.393	0.291	0.314			

活動性要因	상 집 단	M	4.852	4.341	4.774	2.304*	1.728	0.340
		S D	1.175	1.453	1.531			
	중 집 단	M	4.919	4.334	4.636	4.125**	2.065*	2.512*
		S D	1.216	1.288	1.295			
하 집 단	M	4.721	4.369	4.517	1.570	0.630	0.888	
	S D	1.304	1.366	1.430				
差의意義 度 C R 檢證	상집단:중집단 중집단:하집단 상집단:하집단		0.394 1.083 0.629	0.035 0.182 0.118	0.660 0.598 1.054			

意義度水準 *p<.05 **p<.01

<表 7> 매스미디어 接觸水準別 反應差 N=298 (상집단=109, 중집단=100, 하집단=89)

子 分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評價要因	상 집 단	M	5.346	4.195	3.727	6.931**	2.597**	9.997**
		S D	1.079	1.357	1.303			
	중 집 단	M	5.318	4.497	3.792	5.374**	4.064	9.494**
		S D	0.935	1.208	1.346			
하 집 단	M	5.293	4.168	3.579	6.171**	2.867**	8.747**	
	S D	1.144	1.284	1.452				
差의意義 度 C R 檢證	상집단:중집단 중집단:하집단 상집단:하집단		0.201 0.163 0.333	1.702 1.809 0.143	0.191 0.895 0.747			
能力要因	상 집 단	M	4.880	4.022	4.204	5.163**	1.000	4.279**
		S D	1.030	1.396	1.288			
	중 집 단	M	4.862	4.317	4.317	3.071**	0.000	2.938**
		S D	1.260	1.250	1.361			
하 집 단	M	4.747	3.991	4.165	3.865**	0.808	2.815**	
	S D	1.242	1.365	1.504				
差의意義 度 C R 檢證	상집단:중집단 중집단:하집단 상집단:하집단		0.112 0.631 0.808	1.612 1.705 0.157	0.615 0.725 0.193			
活動性要因	상 집 단	M	4.889	4.350	4.692	3.167**	1.976*	1.205
		S D	1.184	1.325	1.229			
	중 집 단	M	4.885	4.487	4.625	3.038**	0.688	1.374
		S D	1.163	1.340	1.493			
하 집 단	M	4.783	4.176	4.595	3.058**	1.950	0.877	
	S D	1.320	1.328	1.532				
差의意義 度 C R 檢證	상집단:중집단 중집단:하집단 상집단:하집단		0.025 0.561 0.588	0.742 1.600 0.918	0.352 0.136 0.484			

意義度水準 *p<.05 **p<.01

<表 8> 家族居住地別 反應差 N=298 (대도시=132, 도시=111, 읍면=55)

子 分	개 념	나의未來	韓國의未來	人類의未來	差의 意義度 C R 檢證			
					나 : 한국	한국 : 인류	나 : 인류	
評價要因	대 도시	M	5.273	4.138	3.712	7.657**	2.561*	10.350**
		S D	1.061	1.332	1.370			
	도 시	M	5.296	4.389	3.559	6.091**	5.018**	10.731**
		S D	1.080	1.138	1.316			
읍 면	M	5.483	4.444	3.927	4.421**	1.896	6.697**	
	S D	0.979	1.442	1.418				
差의意義 度 C R 檢證	대도시:도시 도시:읍면 대도시:읍면		0.167 1.119 1.303	1.584 0.247 1.352	0.886 0.940 0.954			

能力要因	대 도시	M	4.695	3.890	4.234	4.709**	2.002*	2.738**
		S D	1.360	1.417	1.375			
	도	M	4.871	4.335	4.225	3.280**	0.663	3.689**
		S D	1.284	1.140	1.325			
活動性要因	읍	M	4.972	4.186	4.231	3.100**	0.154	2.848**
		S D	1.136	1.498	1.560			
	差의意義度 C R檢證	대 도시:도시	1.036	2.712**	0.052			
		대 도시:읍면	0.516	0.650	0.024			
能力要因	대 도시	M	4.835	4.178	4.568	4.082**	2.257*	1.602
		S D	1.254	1.359	1.447			
	도	M	4.837	4.506	4.752	2.004*	1.473	0.500
		S D	1.254	1.207	1.279			
活動性要因	읍	M	4.950	4.418	4.590	2.050*	0.591	1.338
		S D	1.222	1.476	1.577			
	差의意義度 C R檢證	대 도시:도시	0.012	1.992*	1.051			
		대 도시:읍면	0.556	0.383	0.662			
		대 도시:읍면	0.582	1.037	0.089			

意義度水準 *p<05 **p<.01

<표 9> 意味辨別尺度에 사용된 語彙分析表

領域別	形容詞	負荷量
評價領域	1 아름답다—추하다	.870
	2 희다—검다	.854
	3 착하다—악하다	.893
	4 좋다—나쁘다	.847
	5 깨끗하다—더럽다	.873
	6 기쁘다—슬프다	.823
	7 밝다—어둡다	.781
能力領域	8 크다—작다	.649
	9 적극적인이다—소극적이다	.781
	10 건강하다—쇠약하다	.571
	11 똑똑하다—어리석다	.605
活動性領域	12 빠르다—느리다	.717
	13 날카롭다—무디다	.657
	14 활발하다—둔하다	.599
	15 새롭다—낡았다	.584

※ 이 표는 張東煥(1964)의 연구결과에 의한 것임

質 問 紙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

성별 : 남·여 연령 : 만 세 종교 _____

※ 사람마다 미래에 대해서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장래” “한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의 척도에 당신의 느낌이나 생각의 강도에 따라 적절한 난에 표시해 주시오.

(예) 당신의 생각에 “나의 장래에 대해서 약간 아름답게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아름답다 대단히 상당히 약간 중간 약간 상당히 대단히 추하다
--

		나 의 장 래								
		대단히	상당히	약간	중간	약간	상당히	대단히		
아름답다										추하다
느리다										빠르다
작다										크다
희다										검다
착하다										악하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좋다										나쁘다
건강하다										쇠약하다
날카롭다										무디다
더럽다										깨끗하다
활발하다										둔하다
새롭다										낡았다
어리석다										똑똑하다
기쁘다										슬프다
어둡다										밝다

	대단히	상당히	약간	중간	약간	상당히	대단히	
건강하다								쇠약하다
날카롭다								무디다
더럽다								깨끗하다
활발하다								둔하다
새롭다								낡았다
어리석다								똑똑하다
기쁘다								슬프다
어둡다								밝다

1. 부모의 교육

	무	또는서당	국중퇴	국졸	중중퇴	중졸	고중퇴	고졸	대중퇴	대졸	대졸이상
부 :											
모 :											

2. 성장지(단 18세까지 가장 오래 동안 산곳)

_____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_____ 도시(대도시 이외의 도시) _____ 시골(읍면)

3. 가족의 현재 주거지

_____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_____ 도시(대도시 이외의 도시) _____ 시골(읍면)

4. 당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_____ 신 문	_____ 재 봉 틀	_____ 자 가 용	_____ 시 계
_____ 냉 장 고	_____ 카 메 라	_____ 전 기 난 료	_____ 스텝시설
_____ 라 디 오	_____ 에 어 콘	_____ 전 기 다리미	_____ T · V
_____ 선 풍 기	_____ 피 아 노	_____ 전 화	_____ 녹 음 기

5. 다음에 대해서 당신이 접하고 있는 정도를 V표 하시오

① 일간신문을 읽는다	매 일 ()	자 주 ()	가 끄 ()	전연안한다 ()
② T.V를 본다.	()	()	()	()
③ 라디오를 듣는다.	()	()	()	()
④ 대중 잡지를 읽는다.	매 월 ()	자 주 ()	가 끄 ()	전연안한다 ()
⑤ 학술잡지를 읽는다.	()	()	()	()

감사합니다.

An Ananalysis of the future concious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ng Ik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onciousness of the future of oneself, korea and human beings. The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as employed, as was revised by Chang, D.H. (1964) based on Osgood's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The tool wa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Evaluation factor, Potency factor and Activity factor. Evaluation dimension was constructed with 7 polar adjectives, Potency demension with 4 polar adjectives, and Activity demension with 4 polar adjectives. Each item was constructed with seven-step scale. The sample consists of 298 undergraduate students drawn randomly with stratified sampling technique from 5 universities in korea.

The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future conciousness in oneself and korea may be generalized as positive. Especially, the future conciousness in oneself was distinctively positive compared with two concepts.
2. With regard to the factors, the future of oneself and korea is positive in Evaluation factor but the future of human beings is negative in it. In Potency and Activity factors, however, the conciousness tends to be increasingly negative in oneself, human beings, and korea, in ascending order.
3. With regard to the individual backgrounds, the following generalizations can be noted,
 - 1) the reactions of students are less positive in the humanistic and social science than in natural science in Activity factor to the future of oneself.
 - 2) According to the place of growth, the reactions of students are more positive in the city than in the extra-large city with 5% significant differences about the future of korea.
 - 3)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in future conciousness.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educational considerations can be pointed out:

1) It is necessary to gear the future education program toward instilling more optimistic future consciousness in the students.

2) Future education needs to be studied in relation to diverse aspects of society and education.